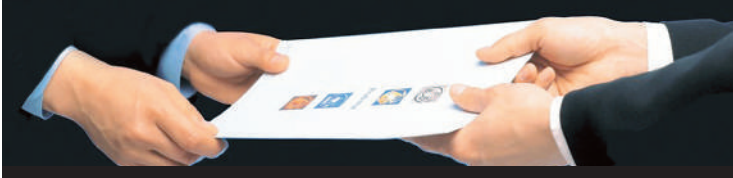


4» 리포트, 한번 가면 함흥차사?



5» 열악한 체육 인프라



2015학년도 2학기 최종등록 안내(졸업예정자)

기간 : 2015.9.16(수)~2015.9.21(월) 수납처 : 하나은행 전국지점
납부방법 : 1)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3)은행 직접 방문 납부

취업률 50.9%, ‘절반 취업’ 고착화되나

진학률은 10% 밀돌아 … 취진차,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 적다”

대학알리미 8월공시 분석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우리학교 양 캠퍼스 취업대상자 4,590명 중 2,337명이 취업해 취업률 50.9%를, 졸업자 5,575명 중 552명이 진학해 진학률 9.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2015년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2015년 졸업생의 진학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취업률인 50.6%보다 0.3%pt 증가했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2015 서울 주요 경쟁대학 취업률>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성균관대(68.3%)와 격차가 17.4%pt나 벌어져 있어 소폭 오른 취업률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폐과가 되거나 졸업자 수가 적은 국제·경쟁대학과 의과대학, 동서의 과학과 등을 제외한 21개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양 캠퍼스 통틀어 한의과대학이 8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음악대학은 9.7%로 가장 낮았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전자정보대학이 68.0%로 가장 높았고, 생명과학대학이 31.3%로 가장 낮았다.

성비로 분석한 우리학교 취업률은 남학생 55.1%, 여학생은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단과대학 중 법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대학 등 4개 단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남학생 취업률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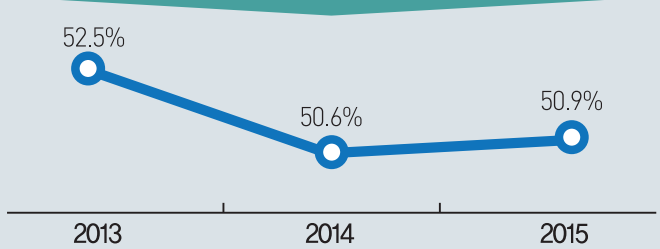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으로 줄곧 언급되는 문제들은 예체능계열과 여학생의 졸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의 원인을 예체능계열과 여학생 졸업자 비율로 돌리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지

난해까지 우리 신문에서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프리랜서나 1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예체능계열의 취업률 저조는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공통현상이라는 점과 여학생이 100%인 이대·숙대와 우리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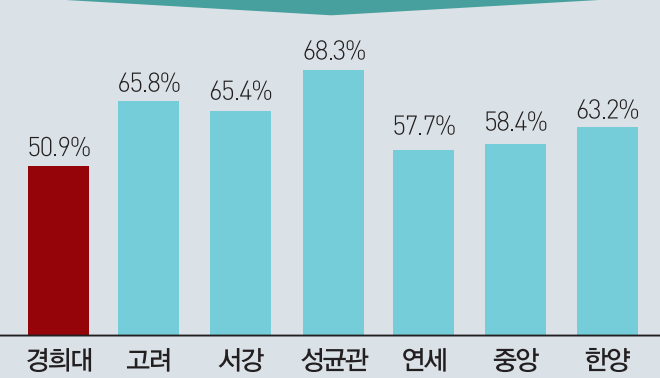
양 캠퍼스 취진차 모두 위와 같은 원인들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꼽았다. 서울캠퍼스 취진처 한상백 팀장은 “다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는 교수, 학생, 구성원 모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타 대학의 취업 지원부분이나 관련 행사를 듣다보면 ‘취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캠 취진처 정현향 계장 또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시스템도 쉽게 바뀔 수 있다”며 “요구가 많으면 점점 더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학교의 진학률 역시 지난해 10.8%에서 0.9%pt떨어진 9.9%다. 이는 서울 주요 경쟁 대학들이 2~30%를 웃ود는데 반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이 31.3%로 가장 높고, 응용과학대학(28.1%)과 무용대학(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단과대학은 간호과학대학으로 0.6%였으며, 호텔관광대학(1.8%), 정경대학(1.9%), 경영대학(1.9%) 등이 2% 미만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열 단과대학의 진학률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진학률이 낮았다. 진학률만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학률이 대학 교육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만큼 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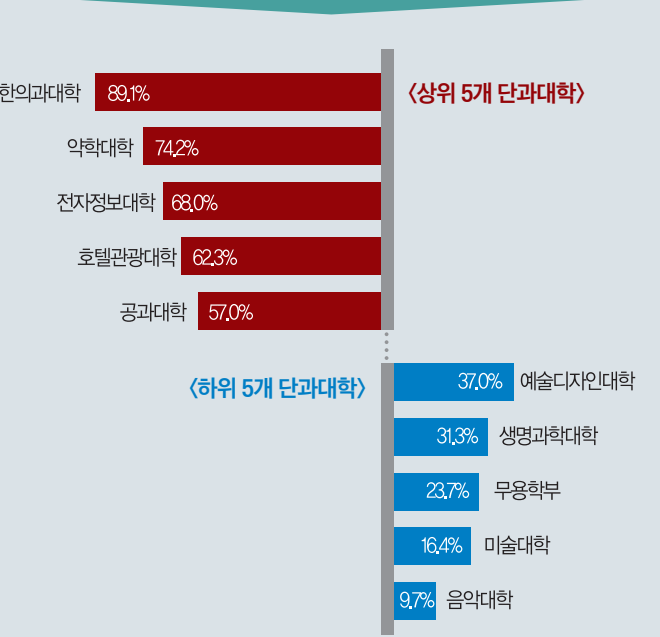
우리학교 3개년 취업률 추이



경쟁대학 취업률



단과대학별 취업률



Newsmaker

청년의 이야기 전하는 절망라디오
리포터 신소진 (정치외교학 2013)양



“우리 목소리로 우리 일을 말하고 싶다”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교육부의 ‘대학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대학생의 자살률이 60% 상승했다고 한다. 우울증과 학업, 진로문제 등의 이유로 세상을 등지는 대학생의 증가는 흔히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들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의 이야기를 기성세대의 입이 아닌 청년의 입으로 말하자는 ‘절망라디오’가 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했다. ‘절망 라디오’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소진(정치외교학 2013)양을 만났다.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 양은 “기성세대가 말하는 청년의 아픔은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싶었다”고 절망라디오의 설립 취지를 말했다. 절망라디오는 ‘안 망한 사람 나와라’, ‘참 망했어요’ 등의 표어로 대학생의 아픈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지난 달 22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절망라디오는 청년의 사연과 함께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앙케트를 곁들여 소소한 재미를 제공한다. 일례로 ‘가장 많이 먹는 점심 메뉴’라거나 ‘10년 뒤 나의 직업’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년의 일상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망한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만 올린 것이 아니다. 신 양은 “살던 원룸의 철거가 결정돼 점점 열악해지더니 결국에는 전기도 들어오

지 않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며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 청년의 삶이 슬펐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달간 쉬며 여행을 다녀오니 밥 먹을 돈이 없어 점심을 굶어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신 양은 “고작 한 달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 밥도 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러한 시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남에게 하기는 꺼리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 또한 열심히 사는 학생에게 아픈 사연을 달라며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 “열마전 부스에서 앙케트를 진행하던 중 대학교에 탐방 온 고등학생 중 일부가 다가와 문과를 지원했다는 말을 했다”며 “그 상황에서 당당히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절망라디오는 청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므로 많은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리포터들과 방송 관계자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신 양은 “부스가 보이면 가끔씩 와서 설문조사도 해 주시고, 공유하고 싶거나 털어 놓고 싶은 사연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양은 “지금 청년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을 우리들의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절망 라디오 듣기
www.podbbang.com/ch/9988

인류문명 핵심개념 〈사회계약 Social Contract〉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②

이기라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리는 왜 권력에 복종하는가? 우리는 왜 특정한 정치적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사회계약은 한 사회에서 권력이나 위계, 또는 정치질서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동의와 약속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일정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계적인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가상의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

회계약론자로는 17세기 영국의 토머스 홉스와 존 로크,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를 꼽는다.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다.

동의에서 나온 권력

개인은 왜 권력에 복종하나?

사회계약론자들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기초하여 정당한 정치적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로부터 인간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자연상태는 모든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들을 강제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사회적 규범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인으로 상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즉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도 없다면, 권력과 지배구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자유로운 개인들로 하여금 정치권력

에 복종하도록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협약이라는 이론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 협약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정치질서나 권력관계는 자연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결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왜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을까? 이 계약의 목적, 나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이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될까?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칼럼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 ‘불평’가 >>7면



시선

사설

정원 감축·교원 충원
적절한 지점 찾아야

-‘전임교원 확보율 77%’를 바라보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77.06%)은 고려대(90.05%), 성균관대(101.14%), 연세대(89.45%), 한양대(80.91%) 등 주요 경쟁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데이터 앞에서 우리학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가령 확보율 100%를 맞춘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은 산술적으로 전임교원 420여 명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학교의 재정여건에 커다란 부담을 강요한다. 인건비와 연구비만 해도 연간 수 백 억 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될 것이며, 충원되는 전임교원의 수 만큼 늘어나야 할 교수 연구 공간은 현행 스페이스21 사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적 공간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민감하고도 까다로운 방향은 ‘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점진적인 재학생 수 감축’이다. 가령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수(1,421명)와 거의 동일한 전임교원(1,423명)을 보유한 성균관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101.14%에 이른다. 이는 재학생 수가 우리학교 대비 약 6,000명 가량 적기에 발생하는 결과다. 우리학교가 각 전공단위 별로 적절한 정원감축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은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것 보다 큰 재정적 압박 없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의 정책 방향성이 ‘둘’ 중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전임교원 420여 명’을 뽑거나 ‘재학생 수 6,000명’을 줄이는 것은 두 가지 모두 극단적인 해법이며, 이로 인해 공동체와 구성원은 커다란 논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내·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학평가 결과들을 분석하며, 그간 우리신문은 이 같은 방향성들을 중도적으로 아우르는 현명한 해법의 모색에 대해 꾸준히 주 문해온 바 있다. 요컨대 대학은 적절한 입학정원 수와 재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는 가운데, 학교의 여건을 감안하며 적절한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병행해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의 확충이 교육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요소임은 분명하나 교원 채용이 재정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학교가 처한 다양한 환경과 입장을 감안할 때,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학교의 재학생 수가 교육환경 개선 작업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서로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의 방향’ 사이의 적절한 어느 지점을 찾아내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학교에 요구되는 자세라고 하겠다. 결국, 우리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적확하게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추석 귀향귀경 버스
오는 23일까지 예약 접수

미디어 여론동향 2015. 9. 1 ~ 9. 1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올해 추석버스는 이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추석 귀향·귀경버스 노선 최소 운영인원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대학주보 온라인, 2015.9.8.)서울캠퍼스(서울캠) 생활협동조합은 올해 추석버스의 최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생협은 “15명이면 적자지만 지방 학생을 위해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버스 온라인 예약은 생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노선은 25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캠 대운동장에서 출발한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운동부원들의 심야시간 소음 발생’에



이주의 주제 - 운동공간 부족

유연한 행정과 책임 의식



퍽! 깡! 뽕! 세 가지 소리가 동시에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11일 전자정보대학 뒤쪽의 럭비구장에서는 럭비부의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투리 공간 한 쪽에서 전자정보대학 야구 동아리 ‘슈퍼스타즈’ 팀이 야구를, 한 쪽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풍경이 연출됐다. 세 가지 게임이 모두 한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운동장 자투리 공간도 차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럭비구장 옆,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서 삼삼오오 모여 캐치볼을 하고 있었다. 이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럭비구장 바로 옆에 있는 야구장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텅 비어 있었다.

야구동아리들이 야구장이 없는 제2기숙사 앞에서 야구 연습을 하는 일은 기숙사생이라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야구장 대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구 중앙동아리 ‘라이언스’도 시설 대여에 어려움을 겪어 멀티미디어 교육관 앞 운동장에서 자주 연습을 하고 있다. 라이온스의 박재륜(화학공학 2009) 감독은 “야구장이 아닌 곳은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동아리원과 일반 학생 모두 위험하다”며 “어쩔 수 없어 현재는 이곳에서 연습을 하긴 하지만, 공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더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스윙 연습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뻔히 비어있는 운동장을 두고 하나의 운동장에서 세 종목이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거나, 충분한 안전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기형적인 연습을 할 수 밖에 없는 동아리의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도 나름의 사정을 말했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기본적으로 체육 시설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하면 시설 훼손이 심해진다”며 “예를 들어 농구장처럼 우레탄으로 된 바닥의 경우, 일반 학생에게 대여된 이후 바닥 손상이 너무 심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할 운동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부장은, 만에 하나 한 번 훼손된 운동장에서 학생이 부상이라도 입을 경우 체육대학이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필드하키장을 이용하다가 다친 학생이 체육대학에 관리 책임을 묻은 사례도 있었다.

정답은 운동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여건을 볼 때 이상론일 뿐이다. 결국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지금의 운동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일반론적인 답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의 ‘책임’이 담보돼야 한다는 단서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결국 책임 의식을 전제로 한 유연한 행정 마인드의 문제인 셈이다.

대한 글(#경희숲_10700, 2015.9.7)이 화제다. 글쓴이는 야간에 운동장을 두고 기숙사 안뜰에서 운동을 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구성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체육부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체대 학생들은 내려와서 직접 이야기하라는 등의 꾀만만 늘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은 333개의 ‘좋아요’와 62개의 댓글이 달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댓글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 일부 체대생이 물 흐르고 있는 듯’, ‘기숙사 총장도 체대생이고, 사람실도 나 몰라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아침시간 승강기’에 대한 글(#경희숲_10719, 2015.9.9)도 있었다. 글쓴이는 ‘아침 시간에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3층 가면서...’라고 짧은 글을 남겼지만 50여 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공감을 얻고 있다. ‘2층 가는데도 타더라’, ‘나는 7층까지 걸어간다’는 등의 댓글과 ‘엄치불구라는 장애’라는 의견도 보였다.

우리학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분야(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에 선정됐다.(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학 분야(ERC) 선정/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9.7)사업 선정으로 최대 7년간 총 1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에는 의과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등에서 15명의 기초, 임상 교수가 참여해 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의료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전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장인 의학전문대학원 박한국 교수는 “대형 국책사업에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루 참여하는데, 경희대 교수가 주축이 된 센터가 선정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5 대학교육의 질 평가에서 우리학교 학생의 65%가 “인성교육을 받았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2015 대학교육의 질 평가...“인성교육 받았다” 경희대 65%로 1위/중앙일보, 2015.9.8) 대학생 6,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인성·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9.8%에 그쳤지만 우리학교의 응답비율은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학생을 교양 있는 지성인, 책임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학내 SNS, ‘비난글’이
‘비판글’로 가야하는 이유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최근 연달아 터지는 국제캠퍼스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학내의 관심을 끌 만한 중대한 이야기였다. 총학생회 예산안 문제, 체육부 기숙사 소음 건 등 그간 반복돼 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이 ‘파찰’들은 학생들의 날선 비판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중 소셜 네트워크, 즉 SNS의 역할은 단연 주목됐다. 그간 ‘대자보’나 ‘1인 시위’ 등의 형태에 머물렀던 일련의 ‘학내 의견’형태는 이제 명확히 변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은 존재한다

‘현대사회와 미디어’ 수업 시간에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엔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보의 범람’은 IT기기가 개개인마다 주어진 현대 사회에서 눈부신 속도를 실감케 한다. 즉, 정보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달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이 ‘아래서’ 받아보는 형태가 돼 버렸단 이야기다. 물론 이 행위를 ‘기사’를 만들고 ‘언론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건’과 ‘개인의 해석’이 함께 포장된 채 온라인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때때로 긍정적이면서도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 사람마다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다. 이때 합당한 근거를 가진 하나의 ‘비판’은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하지만 동시에 SNS는 ‘가상공간’이라는 특징을 등에 업고 반드시 어두운 이면을 만들어낸다. 근거 없는 관점인 ‘비난’은 사건을 원만한 해결보다는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얼룩지게 해 본질을 오도하고 더럽힌다.

최근 페이스북 ‘대나무숲’페이지의 체육부 기숙사 소음 동영상은 수많은 댓글을 몰고 왔다. 관점은 조금씩 다를 지라도 예의를 지킨 정당한 비판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됐다. 실제로 학생들의 여러 비판을 수렴해 체육부와 체육대학 측은 ‘9시 소음 금지’ 규칙 제정, 학생들과 체육대학 사이의 의견 피드백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등 실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의견을 표출했던 학생들이 직접 이뤄낸 갈등 해결의 한 부분일 것이다.

반면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또한 많았다. 욕설과 비방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만 집중한 댓글들은 결국 최초의 ‘논의’에서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그 뜻을 변질시켰다. 실제로 관련내용 취재를 위해 만났던 취재원 중 일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었다.

개인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시대다. 바라보는 시야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존재한다. 모두가 감성적인 ‘비난’이 아닌 이성적인 ‘비판’을 바라본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을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7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안전’ 대비해야 안전한 동선 확보 관건…표지판 등 보완 필요

SPACE21 안전문제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지난달 28일 청운관 앞 녹원 조경공사 현장에서 소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소나무가 이전부터 불안해서 지지대로 고정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밝혔다. 쓰러진 소나무로 알 수 있듯이 개강 이후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SPACE21에 관한 안전문제를 짚어봤다.

개강 이후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청운관에서 경영대 혹은 학생회관과 의대까지의 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SPACE21 공사 주변에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험뎅고개 위를 지나 문, 이과대로 향하는 길은 관리가 어렵다”며 “공사 범위도 아닐뿐더러 인원이 배정돼 있지 않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휠체어를 탄 한 학생은 “청운관에서 수업을 듣고 정경대로 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다”며 “숲길은 넓이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어쩔 수 없이 도서관쪽 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동선이 길고 경사가 심해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도 경사로가 플라스틱으로 돼있어 불안하다”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문 인근에서 차도로 보행하던 또 다른 학생은 “길이만 들어졌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간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종합적인 동선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고, 교통정리는 몇 안 되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숲길 인근의 직원은 “보행자가 익숙한 길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차도를 많이 이용한다”며 “차량을 통제하면 그 틈에 뒤로 돌아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학생이 많아 곤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문 앞 직원도 “차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며 “공사차량



① 현재 공사중인 서울캠 대운동장 모습.
② 노천극장과 대운동장을 잇는 지하통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수시로 출입하기 때문에 차로 통행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CE21 건설사업단은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보행로에 배치된 안내 직원을 개강 후 2주 동안 12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밝은사회탐에서 크라운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야광등을 설치해 야

간 차량운행과 구성원의 통행을 배려하고 있다. 장 팀장은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공사 전에도 험뎅고개 부근과 밝은사회탐, 크라운관 쪽은 제대로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위험했다”며 “공사 중에도 보행자와 차량 분리에 신경을 쓸 것이고, 완공 후에는 동선이 완전히 격리되게 되니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총학·대학본부 건설사업 전반 논의할 ‘소통위원회’ 설치

SPACE21 소통위원회 설치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서울】 SPACE21 사업관련 중요사안을 논의할 특별기구인 ‘소통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대학본부가 합의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 따른 것이다.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구성원과 SPACE21에 대한 중요 사안을 논의한다 ▲기체 상환 계획을 1차적으로 특별기구에서 논의한다 ▲안전점검 실시와 결과 공개 후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및 보수한다 ▲강의수와 학생학습에 대한 제반 조건을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강의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정책위원회에서 합의한다 ▲대운동장, 노천극장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장애학생들의 이동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통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 캠퍼스 부총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SPACE21 사업 지원단장이 맡고, 추진위원은 양 캠퍼스 교수 2명과 교직원 2명, 학생 대표(또는 추천인)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정책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재정경영위원장, 사업지원단 행정과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캠퍼스는 캠퍼스종합개발TF가 이미 운영 중이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추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통위원회’의 1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이후 격월로 정기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정기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소통위원회’ 설치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부회장은 “운동장 사용 문제 등 직면한 여러 문제는 설치 이전에 대학본부와 직접 논의해 처리했다”며 “특별기구에 참여할 일부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소통위원회는 향후 SPACE21 사업 관련 건설 및 재정 운영 등의 진행 상황 공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제34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

<div>■ 개요</div> <div>• 행사명 : 제34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div> <div>• 주제 :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div> <div>• 일정 : 2015.9.21.(월)~22(화)</div> <div>• 장소 : 평화의 전당, 청운관 B117호</div>			<div>■ 전체 취지문</div> <div>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div> <div>‘행복한 삶,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화두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갈등과 고통, 불안과 불신의 정조(靑鳥)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잇달아 공개되는 지구 문명 보고서는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문명 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굶주림과 가난,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절구, 증폭되는 빈부격차, 일상화된 핵 · 테러 위협, 높아내리는 국지성 빙하와 생태 위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명의 흐름은 인간이 과연 안전과 행복의 조건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집니다. 경희대학교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81년에 제안한 UN 세계평화의 날 34주년을 기념합니다. 올해는 특히 UN 창설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 행사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평화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 가치, 안전과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 우리는 현대 문명의 수혜자로, 그 특권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div> <div>Peace BAR Festival(PBF) 2015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9월 21일과 22일, 기념식과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 개막을 알리는 9월 21일 오전 행사 기념식에선 지난 33년의 PBF 연혁 소개와 함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문명의 오만과 억압 정치에 맞서 한 평생 ‘역사의 진실’과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의 주역 고(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께 영예 평화학 박사학위를 수여 합니다. 뒤이어 이를 축하하는 체코국립음대와 경희대 음대의 특별한 공연을 갖습니다. 당일 오후에 진행될 <1부: 영예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는 하벨 연구의 권위자 체코 카렐대학교 마틴 푸트나(Martin C. Putna) 교수와 국내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해 이 시대 하벨의 생애와 철학이 주는 역사적 의의를 성찰 합니다. 다음 날 9월 22일 진행될 <2부: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대담>에는 국내 전현직 대학 총장 3인과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UNESCO 사무총장,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에이미 거트먼(Amy Gutmann) 총장이 함께하는 ‘성찰과 전망’의 자리를 갖습니다. 이 시대 대학과 정치, 정치와 대학은 어떤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더 나은 인류와 문명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과 가야 할 혁신과 창조 의지를 모색합니다.</div> <div>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식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공동 상상, 가치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능한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안위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PBF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div>		
<div>■ 전체 구성</div>			<div>• 경희구성원 공모전</div>		
<div>일정</div>			<div>일 자</div>		
<div>세계평화의 날 기념식(10:00~10:25)</div>			<div>2015. 9. 7(월) ~ 11.13(금)</div>		
<div>개회</div>			<div>PBF 2015 주제와 관련된 서적 및 영상을 감상한 후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로 UCC영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가치의 길을 모색한다.</div>		
<div>세계평화의 날 개관</div>			<div>주 제</div>		
<div>축하 메시지(영상)</div>			<div>세계평화, 우리 삶 속의 평화, 세계시민의 자세,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div>		
<div>기념사</div>			<div>대 상</div>		
<div>프리젠테이션</div>			<div>- 학생 전공 영역별(인문사회, 이공, 예술 및 의학 계열)</div>		
<div>명예박사학위 수여식</div>			<div>주 관</div>		
<div>수락사</div>			<div>대외협력처 홍보실, 미래문명원</div>		
<div>축하공연</div>			<div>•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div>		
<div>1부 영예박사 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 (13:00~17:00)</div>			<div>일 자</div>		
<div>취지 및 패널 소개</div>			<div>2015.9.16.(수)~22(화)</div>		
<div>토론</div>			<div>개 요</div>		
<div>질의 응답</div>			<div>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15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으로서, 국내 대학생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통한 세계의 평화’를 표방하며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div>		
<div>2부 세계평화의 날 기념 라운드테이블 (15:00~17:00)</div>			<div>주 제</div>		
<div>취지 및 패널 소개</div>			<div>당신의 목소리로 세계시민교육을 말하다</div>		
<div>토론</div>			<div>주 관</div>		
<div>질의 응답</div>			<div>GSC(지구사회봉사단)</div>		
<div>※ 행사 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웹캐스팅 및 동시통역 예정</div>			<div>장 소</div>		
<div>■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div>			<div>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401호</div>		
<div>• 평화토크</div>			<div>• 전체코 대통령 관련 전시회</div>		
<div>일 자</div>			<div>일 자</div>		
<div>2015.9.18(금) ~ 25(금) 중 1일</div>			<div>2015.9.16.(수)~22(화)</div>		
<div>개 요</div>			<div>개 요</div>		
<div>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들이 기획단이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다. PBF 2015 주제와 관련된 영상 및 저서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의해 본다. 앞으로 모두가 함께 할 우리의 가치와 그 가능성의 미래를 살펴본다.</div>			<div>바츨라프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이끈 주요 인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과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관련 도서, 사진,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div>		
<div>주 제</div>			<div>주 관</div>		
<div>평화</div>			<div>미래문명원 중앙도서관, 체코 문화원 협조</div>		
<div>대 상</div>			<div>• 도서, 사진</div>		
<div>경희구성원</div>			<div>2015.9.16.(수)~18(금) :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 온실 사이)</div>		
<div>서울 및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및 ARETE담당교수: 우기동(서울), 김영진(국제)</div>			<div>장 소</div>		
			<div>다큐멘터리</div>		
			<div>2015.9.16.(수)~18(금) : 도서관 시청각실(4회 상영)</div>		
			<div>2015.9.21.(월)~22(화) : 평화의전당 로비</div>		
			<div>• 34회세계평화의날 기념 전시회</div>		
			<div>일 자</div>		
			<div>2015.9.22.(화), 10:30~12:00</div>		
			<div>주 제</div>		
			<div>자기성찰에 대한 잠정적 생각(Tentative Thoughts on Introspection)</div>		
			<div>초청자</div>		
			<div>이반 하벨(전 카렐대학교 이론연구소장)</div>		
			<div>주 관</div>		
			<div>문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미래문명원</div>		
			<div>장 소</div>		
			<div>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div>		
			<div>• 세계평화의날 기념 ‘경희인문학포럼’ 초청 특강</div>		

기획

“점수만 받으려 듣는 강의 아냐”... “성실한 침묵 안되나요”

학생들의 과제 피드백 요구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강수현(영어학부 2015)양은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안이 빙빙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강했다고 생각한 강의에서 불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장이 넘는 레포트 과제도 정성을 다 해 작성했고 시험 때는 답안지의 앞 뒷장을 짹짹 채워 냈기에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터였다. 열심히 한 만큼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각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아니면 중간고사 때라도 피드백을 받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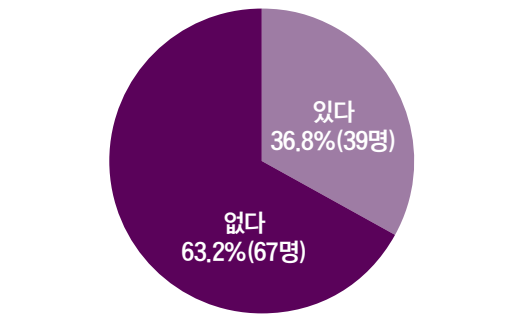
강 양의 사례처럼, 학습과정에서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신문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8%(39명)에 그쳤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 과제 피드백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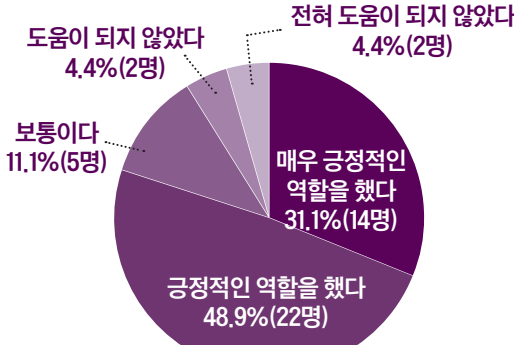
교강사로부터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강사들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한 강의 당 적으면 30명에서 많으면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과제를 일일이 첨삭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강사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연구활동 및 학내외 봉사활동 등에 대한 책임 역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교수는 조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수의 연구 실적 등에 따라 배정되는 조교의 수가 달라지지만 예산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교수 1인 당 조교 1명이 배정된다. 때문에 설령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해도 고작 두세 명이 수십 명 학생의 과제를 상세하게 첨삭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수 한 명이 보통 한 학기에 2~3개의 강의를 맡고 여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쉽지만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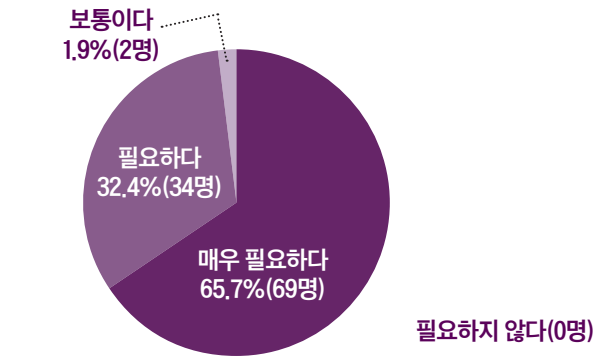
Q. 수업 중 제출한 과제물과 시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강사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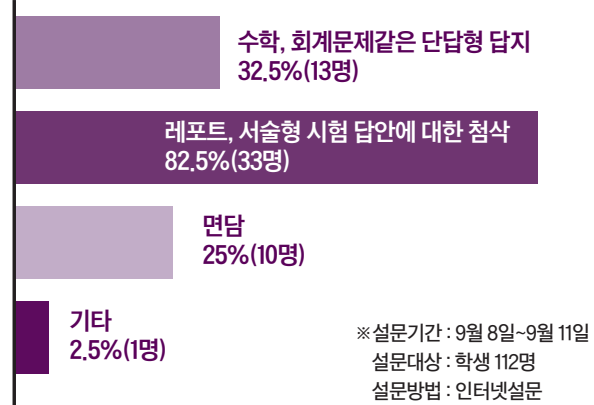
Q. 피드백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Q.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설문기간: 9월 8일~9월 11일
설문대상: 학생 112명
설문방법: 인터넷설문

은 일이다. 사실 조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교를 두고 있는 또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조교들이 대학원생이니 학부생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학문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과제 첨삭을 조교에게 맡기기는 애매하다. 단답형 문제 채점은 조교가 해주기도 하지만 레포트 첨삭은 이런 이유로 직접 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지만 혼자 모든 분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한 학생에 한해 첨삭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1%에 해당하는 10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학습 과정에서 피드백을 원하는 것일까. 많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점을 들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

는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주관형 질문에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지 않아서 어디가 잘 못 된지 몰라서 답답했다’고 답했다. 특히 한 응답자는 ‘단순히 점수만 받으려고 듣는 강의가 아닌데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 시험을 위한 시험을 보는 느낌’이라며 ‘학기 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수업에서도 개인별 피드백을 해주신 교수님이 없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피드백을 받아봤다고 응답한 39명 중 36명(80%)이 ‘피드백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시민교육 수업에서 개인별 상세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김예영(철학 2014)양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께서 과제물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직접 써서 돌려주었다. 이 수업을 통해 글 쓰는 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좋지 않은 소소한 글 쓰기 습관들을 지적해주어 좋았다”고 말

했다.

학생들의 과제와 시험에 대한 피드백 요청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과제 돌려받기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과제를 제출할 때 ‘교수님, 과제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맨 앞장에 부착하면 교강사가 첨삭을 해서 돌려주는 운동이었다. 이후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 ‘과제 돌려받기 운동’이 퍼져나갔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는 한계점도 있었다. 한 강의 당 수강생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채점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피드백 요청이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수님의 빨간 펜’이라는 캠페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학기에 10개

강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이 캠페인은, 이번 학기에는 15~20개 강의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교강사가 해당 강의의 학생들에게 과제와 시험을 첨삭해서 돌려주는 형식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황선경(정치외교학 2011)회장은 “학생들이 교양수업에서 많은 양의 과제를 제출하지만 과연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의 활동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길 것”이라고 말했다.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이 집약돼 나타난 ‘교수님의 빨간 펜’ 캠페인이 타 대학들의 전철을 밟으며 구호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강의 당 학생 수 축소, 한 전임교원 당 조교 배정 수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강사의 과제 피드백,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학사지원과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 강의 당 수강생 수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강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조교 수 문제에 대해서도 교무과 측은 “이미 우리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조교지원을 잘해주는 편에 속한다”며 “조교지원도 등록금으로 하는 것인데 현 상태에서 더 늘리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제가 ‘점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닌 ‘학문적 발전을 위해 수양하는 것’이 되려면 학습 피드백이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학습 피드백은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큰 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학교 측도 공감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학생들이 때때로 피드백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며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부족함을 꼬집으려는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습 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대학이 교수와 학생이 함께 발전하는 학문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셋째 주(9.14~9.1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일시	장소
현대백화점/현대홈플러스 채용설명회	9.14(월) 12:30~14:30	청운관 B117호
IBK기업은행 채용면담	9.14(월) 10:00~18: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기업은행 채용설명회	9.14(월) 15:00~17:00	오비스홀 111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채용설명회	9.14(월) 16:0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빙그레 채용면담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골프존 채용면담	9.15(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SK네트웍스 채용면담	9.16(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SK증권 채용면담	9.16(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CJ 채용설명회(푸드빌, 오쇼핑)	9.17(목) 14:30~16:30	청운관 B117호
CJ 멘토링 채용면담	9.17(목) 16:00~18:3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특강

특강제목	일시	장소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 1 (배상복 교수님)	2015.09.16.(수) 13: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 취업상담 (송승영 교수님)	2015.09.16.(수) 17:00~18:00	내오관 104호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전은명 교수님)	2015.09.18.(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팀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 상담	컨설턴트 4명 (각 컨설턴트별일정 상임)	월 ~ 금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빌딩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상차/ 상담, 배너에서 신청(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필수 불가(상담 당일 전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문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 하반기 분야별 취업특강 일정표

구분	과목명	교수명	특강 제목	일시	장소
구분	면접정보와 프리젠테이션 스킬	박창욱	1. (9/21) 통발는 넣는 취업전략 2. (10/5) 취업심리화-나와 면접관의 심리 3. (11/2) 해외취업과 대우의 Global YBM 4. (12/7) 발학의 의미와 취업(전략적 이동) 5. (1/9)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6. (2/10) 조직이해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7. (3/11) 성공적인 면접전략 8. (4/12)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	월 12:00 ~ 14:00 화 12:00 ~ 14:00	청운관B117호
구분	역량개발 전략론	이정호	1. (9/16)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1 2. (10/21)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2(자소서 합격,불합격 사례 분석) 3. (11/18) 취업 논술 작성법 1 4. (12/16) 취업 논술 작성법 2	수 13:00 ~ 15:00	청운관B117호
구분	취업논술과 기획서작성법	배상복	1. (9/16) 금융권 취업상담 2. (9/30) 금융권 취업상담 3. (10/7) 금융권 취업상담 4. (10/28) 금융권 취업상담 5. (11/18) 금융권 취업상담 6. (11/18) 금융권 취업상담	수 17:00 ~ 18:00	내오관 104호
구분	금융권 취업실무론	송승영	1. (9/10) 대기업 직무작성법시의 주요 출제영역 및 대응방안 연구 (양광모) 2. (9/24) 수리(응용수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안진성) 3. (10/8) 상식(경제, 경영, 시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4. (10/22) 공간지각력(사각작사고력)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곽인경) 5. (11/5) 추리(논리, 판단, 명제)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김익중) 6. (11/19) 수리(도표데이터처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7. (12/3) 상식(한국사 및 역사에세이) 대기업 출제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8. (12/17) 수리(도식, 수열추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목 15:00 ~ 17:00	내오관 103호
구분	직무작성법 분석 및 연구	안진성 양광모	1. (9/18)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2. (10/1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3. (11/20) 영어면접 요령 4. (12/18) 모의면접 실시	금 17:30 ~ 19:30	청운관B117호
구분	외국계기업 취업총론	전은명			

※ 12월 특강 장소는 추후 재공지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진짜 나를 만날 시간

9월 24일 사전

내 안의 감정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공감훈련 10시간 과정은 학부생들에게도 나와 나를 공감하는 방법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15. 9. 24 ~ 11. 19 (매주 목/금 8회) 오후 3시~5시
*방과후 시간 10:00은 희망자만
장소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연구소
신청인원 | 선착순 10명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02-961-0207
*오전 9:00~12:00, 오후 1:00~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교생활을 더 즐겁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

안면도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사물을 보는-어떤 도움을 받나?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발달시킵니다.

Q2. 바뀔 부분이 되나?
감사하는 및 개인특성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심리학과를 받을 수 있나?
1. 진로 및 학습상담
U&I 진로탐색검사
진공 및 중대문제와 자신의 성격과의 일치성을 파악하기
'언제?' 시간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4. 사물을 보는-어떻게 해야 하나?
진공 및 학습상담
자신의 성격의 영향력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
'언제?' 시간과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일정시간 | 오전 9시 ~ 오후 17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설자리 잃는 체육 공간 … 체육부·동아리 공간 찾아 외부로

열악한 체육 인프라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국제】운동공간 부족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의 체육 인프라가 축소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공간 부족 문제로 체육부 선수들은 홈경기를 외부에서 치르기도 했고 운동 동아리들은 존폐 기로에 서기도 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와 외부 대여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축구부와 럭비부는 운동장 사정 때문에 외부에서 홈 경기를 치르고 있다. 우리학교는 멀티미디어관 앞 천연잔디구장과 전자정보대학 뒤에 흙으로 된 운동장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천연잔디구장은 잔디 재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가 까다로워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축구부도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매년 전반기의 잔디구장은 거의 폐쇄 상태다.

축구부, '외부'에서 홈경기 치루 사실상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 셈

축구부는 지난 '2014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우리학교에서 홈경기를 하지 못했다. 올해 '2015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4경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학교의 홈경기는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열리고 있어 사실상 '어웨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축구부 유진석(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홈에서 학생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며 경기할 때가 장 힘이 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훈련은 축구장이 아닌 공과대학 앞 필드하키장에서 진행된다. 필드하키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축구부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필드하키장 특성상 축구화를 신을 수 없어 실전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학교처럼 천연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남대는 천연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 영남대 최원우(건설시스템공학 2014) 군은 "교내에 운동장이 개방돼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럭비부 또한 천연잔디구장 사용 불허로 지난 '2015 코리안 럭비 리그' 대회 홈경기를 고려대에서 치렀다. 우리학교는 1부 리



① 인공암벽장은 시설 노후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②③ 운동공간 부족으로 전자정보대학 뒤 럭비장에서는 럭비부 훈련과 야구 동아리의 야구 연습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에 속한 4개 대학의 팀 중에 유일하게 인조잔디구장이 없다. 럭비부는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훈련해 부상의 위험이 크다. 게다가 흙바닥은 충격흡수가 미미하고 표면이 거칠어 선수들은 더 큰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럭비부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주장은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어 날씨가 훈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체육부 뿐만 아니라 운동 공간 부족은 일반 학생들과 운동 동아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학교의 다양한 운동 동아리들은 운동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동아리가 없어지거나 외부 시설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축구 동아리는 교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중앙동아리 '아마축구' 윤성식(체육학 2014) 부회장은 "학교 내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외부로

나가 운동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아마축구'는 지난 학기까지 매주 월요일은 핸드볼장, 목요일은 필드하키장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으나 이번 학기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필드하키장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겨울철 사용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매주 2회 진행되던 훈련은 1회로 줄었다. '아마축구'는 회비를 모아 외부 풋살장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테니스 동아리는 동아리 '러비스'의 관리하에 주말에도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접어들면서 주말 코트 사용을 금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체육대학 측에서 '경희 테니스 아카데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단과대학 야구동아리들은 운동 공간 부족으로 동아리 존속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야구동아리들은 2년 전 야구장 보수공사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야구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보수공사 이후 관리를 담당하는 체육부 측에서 새로운 야구장을 외부에 대여하거나 교내 행사를 진행해 정기적으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단과대학 야구 동아리 간에 진행됐던 '글로벌 리그'는 2년 전 8팀에서 5팀으로 줄어든 상태다. '글로벌 리그' 회장을 맡고있는 전자정보대학 야구동아리 슈퍼스타즈 박상교(전자·전파공학 2011) 회장은 "지난 학기 외부 대여사업으로 야구장을 못 빌리는 경우가 많아 매학기 진행되던 '글로벌 리그'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기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아리 운영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지고 신입생도 들어오지 않아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이번 학기에는 야구장을 정기적으로 대여받았지만 이미 인원이 줄어들어 부족한 사람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간히 진행되던 단과대 간 경기도 인원이 부족해 중앙동아리 '라이온스'와 연습게임을 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리 존속에도 영향 미쳐 시설대여 시스템화 필요

한편 체육대학 2층의 인공암벽장은 노후화로 방치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반 인공암벽장이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인공 흩더(손잡이)를 세척하는 반면 우리학교 인공암벽장은 관리에 소홀했다. 이로 인해 인공 흩더의 마찰력이 줄어들었고 지난해에 결국 안전상 폐쇄됐다. 2014년 1학기까지 진행되던 '인공암벽등반(기숙사 프로그램)' 수업도 폐강됐다. 산악부 이범희(한약학 2009) 전 대장은 "인공 흩더를 세척하면 학교에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수 일정도 잡힌 것 같지 않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체육부 김도균 부장은 "운동 공간은 체육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체육대학의 예산만으로 관리가 이뤄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장은 "운동 공간을 일반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면 경기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설 대여에 관련해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 보충훈련 안내(공고)

- 훈련대상 : 2015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 장소 : 금곡(미금)훈련장
- 일정

훈 령 명	훈련일자	대 상
향방기본 보충훈련	9. 30(수)	2시간 이하 대상자
	10. 2(금)	3시간 ~ 8시간 대상자

※ 훈련명부 : 첨부파일 참조

● 이동방법

-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문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회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지도참조

● 참고 및 유의사항

-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t.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과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 다. 전년도 훈련 미이수자, 9월 16일 이후 예비군 전입자는 추후 개별 보충 및 이월훈련 부과라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군용요대, 바클, 고무장갑)복합자 훈련인소 불가
- 마.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바.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 사.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 자. 기초성형수급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 카. 2014년 1월 1일부터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지역편성,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임
- 타.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문번호로 반드시 수정
- 파. 기타 문의사항은 청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 ◆ 시내버스 이용
- 청량리/회경동 : 30번, 천호동 : 23/1-4번, 강변역 : 93번
- ◆ 전철 이용
- 중앙선 덕소/용문행 [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 개인차량(내비게이션) 이용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중앙아파트 검색
- ◆ 전화번호
- 221연대 : 031-595-8337(교환) 연대동원과 또는 3대대동원과
-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국제C : 2015. 9. 30(수) 19:00 본관3층 대학회실
- 서울C : 2015. 10. 1(목) 19:00 청문관 207호
- 주요내용
- 2016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안내
- 2015학년도 입시결과 설명
- 질의응답
- 문 의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961-9218~9, lawschool@khu.ac.kr, http://www.khls.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lf Design 프로그램"지원자 모집!

스스로 필요한 활동을 디자인하고 활동비를 지원 받자~!!

경희대 입학처(국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Self Design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및 목적
가. 학생 스스로가 잠재력 개발, 인성발달, 경력 및 자기개발 등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설계함.
나. 본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잠재력과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지원 자격 : 본교 국제캠퍼스 소속 재학생
* 신입생이거나 가평행원이 어려운 경우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활동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성금을 지급함.
3. 활동기간 : 2015학년도 2학기(2015.09.01~2015.12.31)
4. 활동내용 : 잠재력 개발, 글로벌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인성발달, 기타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 단순 공인어학시험 성적 취득을 위한 수강료, 시험응시료, 교재 구입비 등은 지원함.
5.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총 20명(1인당 최대 20만원)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선정된 학생은 9. 23(수)~24(목)에 개별 통보함.
6. 평가기준 : 구성성, 적성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지원 방법 : 09.07(월) ~ 09.20(일)까지 입학전형연구센터 이메일(khwaa@khu.ac.kr) 로 접수.
가. 중간 간담회 : 2015. 11.02(월) 예정
나. 시무 간담회 및 우수학생 시상 : 2016. 02.22(월) 예정
* 선정된 학생은 9. 23(수)~24(목)에 개별 통보함.
8. 간담회 및 포상
가. 중간 간담회 : 2015. 11.02(월) 예정
나. 시무 간담회 및 우수학생 시상 : 2016. 02.22(월) 예정
9. 문의사항 : 입학처 장문미 입학사정관 [031]201-3093, khwaa@khu.ac.kr

경희대학교
입학전형 연구센터

보도

구체성 결여된 국제캠 총학 회칙 ... 관련 조항 개정 논의 본격화 될듯

국제캠 자치회비 결산 내역 파동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공개한 자치회비 결산 내역에 학생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총학에서 홈페이지(http://cafe.naver.com/khuch2015)를 통해 ‘2015년 3월~8월 자치회비 결산안’이 올라온 이후에는 A학생이 ‘총학의 학생회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검찰청에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학생들이 국제캠 총학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총학 활동이 지닌 ‘불투명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학은 지금까지 학사사안과 모든 학생회

들의 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과 단위 이상의 학생회가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총학이 1월과 2월 자치회비 결산안만 올린 채로 지난 9월까지 자치회비 결산안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총학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올리지 않는다며 총학을 비판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총학 관계자가 대숲을 안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학관 앞에서 사퇴하라고 시위라도 해야 한달 분 회비 사용내역을 올려줄 것 같다”라며 “지금 총학의 행태

로는 여론이 들끓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에 나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게재된 총학에 대한 불만 글이 40여 개 일 정도로 극도로 여론이 나빠졌다.

또한 지난달 29일 올라온 ‘2015년 3월~8월 자치회비 결산안’은 항목별 사용내역과 목적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엑셀 파일이 올라와 학생들은 ‘결산내역에 통장 사본이나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더 높였다. 총학은 이에 지난 2일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서’를 첨부해 새롭게 결산안을 올렸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총학 김용석(화학공학 2012) 회장은 “자치회비 결산안을 학생회칙 167조에 따라

한 학기를 기준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올리려고 했다”라며 “하지만 이전에 열렸던 행사의 결산이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있어 학생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결산안 초본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회의록과 결산 공개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늦게 게재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며 “검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공개해 자치회비 사용이 횡령·비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총학이 언급한 회칙 16장 167조 2항에는 ‘모든 재정은 투명한 사용과 공개를 하고 각 학기마다 결산보고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회칙에 결산보고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학

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회칙 9장 52조 1항 ‘정기 결산 보고는 월별 보고를 기본으로 매달 첫째 주에 한다’로 명시돼있어 국제캠 회칙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학생들은 예·결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의 형태를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통장사본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캠 총학 회칙에는 ‘정보공개’의 형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서울캠 총학 회칙은 국제캠 총학 회칙과 달리 9장 51조 1항, 2항, 3항에 지출증빙 항목을 뒤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총학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구체성이 결여된 국제캠 총학 회칙에 대한 개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장학금, 서울 소재 사립대 평균보다 낮아
1인당 교육비 1,624만원, 연세대 2,725만원에 비해 1,000만원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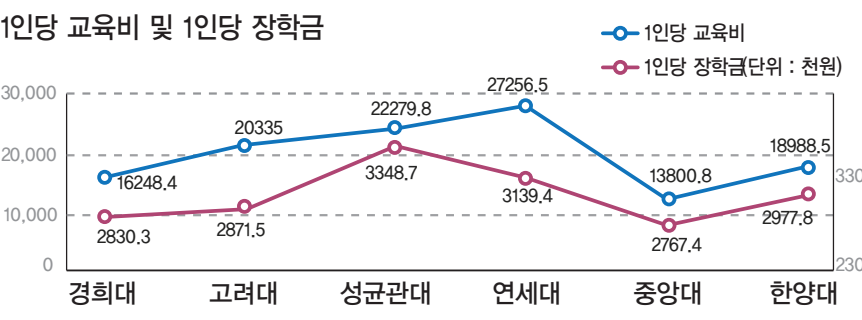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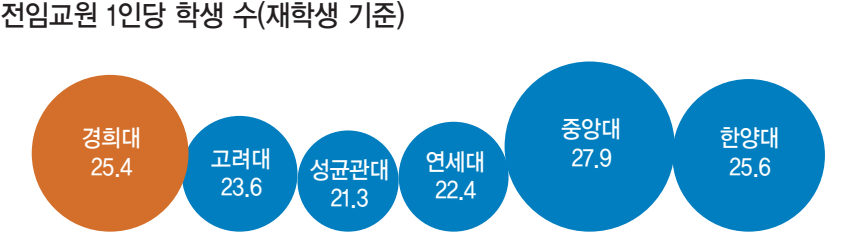
대학알리미 지표 분석

조민호 기자 luv5678@khu.ac.kr
이수형 기자 dltdf12@khu.ac.kr

올해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은 경쟁 타 사립대학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1일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현재 확보한 전임교원 수에 교원 법정정원(법으로 정한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전임 교원의 수)을 나누어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확보한 전임 교원의 수가 많을수록 전임교원 확보율은 높아진다. 전임교원의 수가 반드시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전임교원에 비해 안정된 지위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경쟁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사립대학과 비교할 때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재학생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77.06%를 기록한 우리학교와 76.88%를 기록한 중앙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대학



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80%를 못돌았다. 물론 우리학교가 6개 사립대학에 비해 재학생 규모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재학생 규모가 비슷한 연세대보다도 10%p 넘게 차이났다. 한편 우리대학이 지난해 지급한 1인당 평균 장학금 액수가 2,830,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도(2013학년도) 1인당 평균 장학금 액수인 2,591,000원보다 약 9.2%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서울 소재 34개 사립대학의 평균 1인당 장학금

성포고 성다민 대상 영예
우수상에는 이한솔(안양예고), 최은빈(안양예고)

제 51회 고교문예백일장

보도팀기자 khunews@khu.ac.kr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 고교문예현상공모 백일장 본심과 시상식이 지난달 21일 청운관 B117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은 국어국문학과와 대학주보사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제 51회를 맞는 이번 고교문예현상공모 백일장 행사에 예심을 거쳐 올라온 100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운문과 산문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시 부문의 심사는 우리 학교 이성천 객원교수, 강정구 학술연구교수와 김학중 시인이, 그리고 소설 부문의 심사는 김종희(국어국문학)교수, 서하진(국어국문학)교수, 고인환(휴머니티스칼리지)교수, 평론가 이훈 씨와 소설가 노희준 씨가 맡았다. 이날 시 부문과 소설 부문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주제를 장악하고 구체적인 시상 전개를 보여준 작품들이 많았다”, “인간의 존재 조건에 대한 다양한 고민, 그 고민의 심화된 형태로서의 꿈을 조명하는 솜씨들이 놀라웠다”는 평가가 각각 있었다. 이 날 대상은 성다민(성포고)이 받았고, 우수상에는 이한솔(안양예고), 최은빈(안양예고) 양이 공동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	성포고등학교 성다민
우수	안양예술고등학교 이한솔 안양예술고등학교 최은빈
가작	서정고등학교 박현우 고양예술고등학교 김지민 고양예술고등학교 양혜림 장충고등학교 허찬
장려	안양예술고등학교 김아리영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조재윤 강원대사립대학부설고등학교 박희영 고양예술고등학교 박정윤 안양예술고등학교 심체령 광주여자고등학교 임소진 대전고등학교 김원희 안양예술고등학교 김수진 문정고등학교 박은설 유봉여자고등학교 이선영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경희 대학교
국제 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5.08.17(월) ~ 08.31(월)
·추가 접수기간 : 09.01(화) ~ 09.18(금)

● Level Test
·영어회화 : 09.01(화), 09. 02(수) 17:30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회화 : 09. 02(수) 17:15

● 강의시간표

	07:45 - 8:45	18:00	18:30	19:20	19:30	19:50	20:00	20:50
월	스페인어 초급	프랑스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1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급		
화	스페인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2	독일어 회화 초급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2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목	스페인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1	독일어 회화 초급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금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영어	일본어	중국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2 http://www.ile.ac.kr

2015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상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31

9/1

9/2

9/3

9/4

9/5

9/6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DS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9/9(수), 10:00-17:00

9/9(수), 10:00-17:00

9/10(목), 10:00-16:00

9/11(금), 10:00-17:00

9/14(월), 10:00-17:00

9/15(화), 10:00-17:00

9/15(화), 10:00-17:00

9/16(수), 10:00-17:00

9/17(목), 10:00-17:00

9/21(월), 11:00-17:00

9/23(수), 10:00-17:00

현대 다이모스

OCI

로세아

한국 NKS

한화탈레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도서관 로비

도서관 로비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공대 합키케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031-201-3061
Homepage http://career.khu.ac.kr
E-mail career@khu.ac.kr

2015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설명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7

9/8

9/9

9/10

9/11

9/12

9/13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DS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9/7(월), 14:00-16:00

9/7(월), 16:00-18:00

9/8(화), 15:00-17:00

9/8(화), 16:00-17:00

9/9(수), 14:00-16:00

9/10(목), 15:00-17:00

9/15(화), 16:00-18:00

9/16(수), 15:00-16:00

9/17(목), 16:00-18:00

9/22(화), 14:00-16:00

9/23(수), 14:00-16:00

도서관 피스홀

공대 107호

도서관 피스홀

도서관 피스홀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공대 107호

도서관 피스홀

공대 102-1호

공대 B105호

공대 B105호

공대 107호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031-201-3061
Homepage http://career.khu.ac.kr
E-mail career@khu.ac.kr

칼럼

왜 우리는 먹기만 하면 싸우는가?

전문가 칼럼 - 먹방의 윤리학



최태섭 문화‘불평’가

루리웹 음식갤러리는 자기가 먹은 음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간단한 글을 덧붙이는 인터넷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걸핏하면 댓글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대단하다(?). 일례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이른바 “새우대첩”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어떤 회원이 새우튀김을 차킨처럼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다며 시켜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글이 올라온 후 대부분의 다른 회원들은 집에서 튀기기 번거롭고 사먹으러 가기 힘들데 저런 것이 있으면 편하겠다며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갑자기 헤성처럼 등장한 한 회원이 “편하게 먹는 가격 XX원... 결혼은 하겠는지...”라는 짧은 댓글 하나로 게시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슈퍼에서 파는 냉동 새우튀김을 사다가 직접 튀겨먹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경제적이며, 게시글을 올린 회원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시켜먹고 있으니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우리 주변 ‘먹방’ 게시물
이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례일 뿐이다. 온라인에서 먹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집밥’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 연예인의 ‘먹방’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 누군가가 올린 음식을 두고 벌어지는 댓글전쟁 등등.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한 비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식욕과 문화적 욕구가 기묘한 방식으로 결합해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이 좋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분쟁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가르치려들지 않는 것이다. 하지



만 인간에게는 가르치고 싶은 본능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는 맞선생 아니 맞짖대들이 있다. 이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친환경 맛시스트’다. 이들은 모든 먹거리를 그것이 친환경인가 아닌가, 합성첨가물이나 MSG가 들어갔는가 아닌가로 나누어 후자를 맹비난한다. 그런 음식을 파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것도 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주로 건강식 제일주의자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물론 음식에 해로운 것을 집어넣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 식량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지향해야할 바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이들의 식생활을 비난한다. 특히 이들이 신봉하는 유기농과 ‘자연’이 얼마나 비싼지를 생각하면 이런 행태는 ‘시간적·금전적으로도 식생활을 돌볼 여력이 없는 하층계급’의 문제를 ‘노오력’과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식으로 치부하기 심상이다.

두 번째 부류는 ‘맛도 모르면서’ 아저씨다. 주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곤대질을 한다. 맛있는 것 좀 먹어봤다는 중년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 부류는 식재료, 먹는 방법, 먹는 시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훈계를 하려고 한다. 자

기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사 뭘 먹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급기야는 분노에 차서 “맛도 모르면서!”를 외친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알려주는 것은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좋은 일이지만, 남의 입속사정에 참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를 바라봐 달라는 ‘먹방’
영혼의 허기도 채울 수 있을까

세 번째 부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부류로 ‘가성비’에 목을 매는 이들이다. 20~30대의 젊은 남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가격대 성급비’라는 다소 공학적인 느낌의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한다.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사먹는 것에 익숙한 젊은 남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 때다. 가령 위의 ‘새우대첩’은 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다. 이것의 기준은 과거 패밀리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화해오고 있으며, 이른바 ‘된장녀’ 등으로 나타난 여성혐오의 행태와도 일치하곤 한다. 이들에게 가성비란 다시 말해 음식 소비에 있어서 일종의 도덕률로,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는 사치이며

허영인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간단히 말해 어머니의 손맛 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미술랭 3스타 셰프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아담 시절부터 먹어왔던 익숙한 맛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기어코 사단을 내는 이들이다. 이 경우 문제는 맛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의미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타령을 하는 이들은 대체로 남성이고, 손맛 타령에는 반드시 헌신, 희생, 사랑 같은 가치들이 반찬처럼 곁들여진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치들에 대한 찬양은 남녀의 성역할, 가사분담과 같은 이슈들에서 아주 고리타분한 결론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결국 남이 뭘 어떻게 먹든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유명인과 평범한 사람들이 짝어 올리는 ‘먹방’이며 ‘먹짬’들은 제발 이것을 좀 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있으며 잘 살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애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 영혼의 외식 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선사하지 못해 안달인 오늘날에 말이다.

▶1면에서 이어짐

계약론자들이 제시한 사회계약의 성격과 내용은 자연상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인들이 계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나 등에 따라 다르다. 우선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라고 보았고, 계약의 목적은 바로 각자의 안전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양도하여 그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 절대권력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로크는 자연상태를 흠스처럼 전쟁 상태라고까지 보진 않았지만, 개인들의 자연권, 특히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들이 각각의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권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저항할 수 있게 된다. 루소의 경우, 사회계약이란 “자연상태를 구성하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힘과 주권을 공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생각이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현재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제의 성원 모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 양도에 의해서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가 형성되고, 각자는 이 일반의지를 형성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치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성원이 된다. 결국 루소에게 내가 복종하는 대상은 외부의 권력이 아니라, 일반의지에 참여함으로써 반영된 나 자신의 의지가 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자들이 해결하고자 한

참여마당

박상우
회계세무학 2013



가을,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준비하자

땀땀한 햇볕을 건디기 힘들던 여름이 한 물 가고 가을이 다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오후엔 아직도 여름이 그 기세를 다하지 않은 듯 덥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한 바람이 후덥지근해졌던 몸을 식혀준다. 밤이 되면 여름옷으로는 쌀쌀하고 새벽에 이불이 없으면 춥다는 것을 느끼며 변화가는 날씨가 내게 허용할 수 없는 기분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자그마한 변화들이 서서히, 알게 모르게 일어나 우리에게 가을이 바로 앞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가을이 오는구나. 이제 다시 빨갛고 노란 이파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알아보다가 24절기 중 백로가 그 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의미라서 백로(白露)라고 한다. 이 시기가 되면 새벽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고도 한다.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백로라는 이름 두 글자에 담은 것이다.

매일을 초 단위로 나눠 살지만 ‘오늘’의 의미는 이미
멀다. 시간은 흐르고 쳇바퀴 돌 듯 바쁘게 살아간다

설명을 읽다 보니 옛 선조들의 지혜가 어찌나 재밌던지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름의 끝임과 동시에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입추부터 비로소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날이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처서, 벼락이 사라고 벌레가 땅 속으로 숨어든다는 추분까지.

검색을 이어가다 보니 한 속담이 눈에 들어왔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었다. 더위가 꺾이고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인 모기의 위세가 누그러진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풀이한 선조들의 재치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번 여름에는 이상하리만큼 모기에게 많이 물렸는데, 이제는 모기 입이 비뚤어졌기를 기대해 봐도 되나 보다.

24절기를 읽다보니 경칩, 춘분, 소만, 하지, 처서, 동지 등 덧없이 흘러보낸 날들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가 하고 돌아켜 본다. 절기 속 하루하루는 그 날의 날씨, 태양의 위치, 풍향 등 농업이 일상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조상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이제는 산업화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됐다. 사람들은 매일 초 단위까지 나뉘어 살지만 '오늘'에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됐다. 시간은 흐르고 헛바퀴 돌 듯 바쁘게 살아간다.

이제는 피부에 느껴지는 쌀쌀함에 대비할 때가 되었다. 긴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 한 가운데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느린 평화’를 누릴 누군가는 필요하다. 바쁘게 일한 결과를 느긋하게 맛 볼 시간도 없다면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가을을 느끼며 한 잔 커피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한 숨 쉬어가는 그 시간은 앞으로의 일을 더 풍부한 시선으로 즐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경희대 졸업앨범 촬영안내

[illegible][illegible][illegible]

#. Process



인터뷰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버스를 움직이죠”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여기사

최병헌 기자 chbh1027@khu.ac.kr

#. 매일 아침 회기역은 동대문 01번 마을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때면 이 인파는 정류장을 벗어나 회기역 계단 위까지 이어지기 일쑤다. 서울캠퍼스 학생의 등학교는 물론 경희의료원을 찾는 환자, 그리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요가 몰려 버스 안팎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전쟁통 속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는 버스기사가 있다. 지난 25일, 평범한 세 아이의 엄마이자 지난 십 수 년 간 버스운전대를 잡아온 김진순(42) 기사의 하루를 엿봤다.

10년 동안 학원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수 김진순 기사는, 올해 3월 초 15학번 신입생이 갓 입학하던 때부터 마을버스 일을 시작했다. ‘새내기 마을버스 기사’ 김 기사는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여명도 밝지 않은 새벽 4시 반에 이미 김

기사는 회기역에 출근해 있다. 버스 연료를 충전하고 청소를 하며 운행준비를 마친 후 동료 기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다 보면 시간은 어느덧 5시 55분, 첫 차가 승객을 실을 시간이다. 충분히 피곤할 법함에도, 김 기사는 “몸은 고단하지만 승객을 맞이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루 중 가장 정신없고 바쁜 시간은 통학시간과 맞물리는 오전 9시와 10시 30분 전후다. 이 시간대에는 총 5대의 동대문 01번 마을버스 전부가 운행되는데, 항상 만원이다. “한가한 시간대에는 반대차선의 마을버스랑 마주치면 기사들끼리 손짓으로 가볍게 장난을 칠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이 시간대에는 서로 간에 운행상황을 알려주는 수신호를 보내며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김 기사의 설명이다.

“이 시간대에는 어쩌나 바쁜지 회기역 정류장에 소위 ‘푸쉬맨’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 푸쉬맨은 본래 우리 회사 과장님이신데, 사실 겉모습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좀 무뎅뎅하신 편이라, 승객 분들이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사마다 30분 가량의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통 이 시간대에 교대로 점심식사를 해결한다.



회기역에서 정문을 오가는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우리학교 방문자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김 기사는 회기역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짧은 노선을 하루 18시간 동안 쉼 없이 반복해서 운행한다.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가장 짧은 시내버스노선(0.8km)이다. 짧은 거리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루에도 같은 길을 수십 차례 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동료기사가 하루에 보통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해서 세어봤는데, 왕복 70번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노선을 반복적으로 다니니 지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운전하는 것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 기사는 항상 인사하는 손님들은 얼굴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한다. 손님들 중에는 매번 앞자리에 앉아 말을 걸어주거나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단다. 며칠 전에는 매번 인사하던 한 아가씨가 마스크팩을 선물해주더라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묻어난다. 이런 소소한 승객들의 친절이, 그가 웃음을 잃지 않고 매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지만, 물론 모든 승객들이 김 기사에게 살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령 김 기사는 버스에 오르는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

를 건네지만 김 기사에게 응대를 해주는 손님들은 별로 없다.

“순남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무표정한 얼굴로 확실히 지나쳐가시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도 가끔 같이 밝게 인사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기운이 나는 느낌이예요.”

김 기사는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가끔씩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승객들이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천 원짜리 지폐를 삼등분해서 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김 기사는, 그래도 경희의료원을 찾는 아픈 어르신들이 단돈 몇 백 원이 모자라 버스 이용을 망설일 때에는 사장님 몰래 그냥 앉으시라고 하기도 한다며 멋쩍게 웃는다.

정신없는 오전에 비해, 학교와 병원의 일과가 끝나는 오후 시간은 비교적 여유롭다. 이 시간대에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회기역 정류장의 비좁은 화장장 문제로 천천히 운행한다. 이때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총 3대의 버스가 노선을 달리게 된다.

23시 30분이 되어 막차 운행을 종료하면 김 기사의 하루도 끝이 난다. 집에 들어가면 매번 자정이 넘는 시각. 격일로 일을 하는 김 기사는 비번일 때 부족한 잠을 보충

한다.

“처음 동대문 마을버스 입사 때엔 여성이 하기엔 힘든 일이라며 거절당했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일을 하는 지금은, 이해도 빠르고 센스도 있다며 칭찬도 많이 받아요.”

회사 내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 덕분인지 최근에는 같은 회사의 동대문02번 버스에도 여성 기사를 채용해 연수 중이라고 한다.

김 기사가 승객들에게 바라는 점은 소박하다. “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손잡이를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수업에 늦을까 다급해 하지 말고 조금 일찍 나와서 여유롭게 버스를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는 보통 다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교통카드를 찍을 때에는 단말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이어폰 한쪽을 빼줬으면 좋겠어요.”

간선버스 기사가 되어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 김 기사의 소소하지만 큰 ‘소망’이란단다. 당신, 오늘도 혹시 등하곳길에 동대문 01번 버스를 이용한다면, 잠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김 기사가 건네는 인사에 환한 미소로 답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를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